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5월 20일 (성령강림절/교사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8-10절

설교제목 : “두란노서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목회적 상황을 한마디로 위기로 표현합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우선 내부적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축소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면,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의 회당을 다시 찾은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8절)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하여 배척하였습니다.(9절 상반절)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모욕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훼방하던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 보듯이 바울이 처한 상황도 위기였습니다.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나 환경을 상관없이, 희망을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복음에 적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딤후4:2 상반절에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조차 뿌리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 해 동안’ 계속해서,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10절)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즉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복음이 퍼져서, 골로새,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태동한 교회들이 그 후 수세기 동안 중요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비두니아의 통치자 플리니(Pliny)란 사람이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다음과 같이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이 미신의 폐풍은 도시에서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복음전파는 주님께서 주신 수평적 지상명령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지상명령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직적 지상명령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양육할 수 없는 교회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9절 하반절) ‘두란노서원’이란 ‘두란노’라 이름을 가진 사람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원’이란 헬라어는 ‘스콜레’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school’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원은 ‘학교’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스콜레’는 원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두란노서원은 두란노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스콜레로써, 학자들에 의하면 이 건물이 오전에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되었고,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직적 지상명령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의 쉼입니다.(신6:4-9) 수직적 지상명령은 다

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수평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아무리 이 시대가 요동하고, 혼탁해도, 반드시 희망찬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최대의 과제는 미래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을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결국 교회학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교사를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열정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베자 사본에 의하면 오전에는 건물의 주인이 두란노가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간은 너무나도 더운 날씨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들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시에스타’ 즉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시에스타의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향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이처럼 교회학교 교육의 회복의 키는 교사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학교 교사의 열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주일 삶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맡은 자로 꾸준히 양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사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자녀를 위한 참된 신앙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두란노 서원이란 어떤 곳이었습니까?
- 2)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의 수직적 지상명령과 신약의 수평적 지상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지상명령이 각각 무엇입니까?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를 통해 전도할 당신의 태신자들은 누구입니까?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구역식구들이 함께 해야 할 수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실천합시다.
- 3)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의 책임보다 부모의 책임이 큼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사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 4)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